



조 현 성 부장
(주)하림 사육팀

11월에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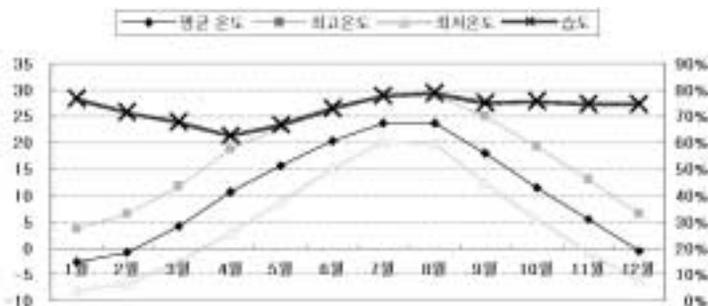
전국적으로 울긋불긋 단풍이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파란 가을 하늘아래 코스모스가 우리를 가슴 깊이 한 들한들 손짓을 한다. 어느덧 아침 저녁 찬 바람에 가을걷이 하는 농부들의 일손이 분주하고, 먼 산 넘어 길게 걸려있는 검은 그림자는 겨울을 재촉한다.

우리 양계인들에게 이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일교차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기 불량에 의한 ‘호흡기성 질병’이다. 최근 호흡기성 질병이 왔다는 소리를 현장에서 자주 듣곤 한다.

양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겨울은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며,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인다. 특히 봄과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래서 분명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여 살기 좋은 나라라고들 한다. 가을철에 들어오면 일교차가 15°C 이상 발생하기 시작하고, 우리 축산인들에게는 사육환경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변덕스런 날씨 변화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항상 고맙지만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를 이해하면 양계경영은 쉬워진다.

가을철에는 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밤낮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계사내의 온도를 적온에 가깝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성적이 우수한 농가는 열심히 닭을 키우는 농가가 아니라 완벽한 시설을 갖춘 무창 계사 시설의 농가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온도, 습도, 환기 등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계사가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이 다가오면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지고 축산을 하는 우리들은 여기저기 계사 시설들을 점검해야 한다. 많은 것 중에 선택하여 집중해야 할 3가지는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꼭 점검하여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1 연료비 문제 먼저 계사 단열을 생각하자

올 겨울 우리 양계인들은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연료비 문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며, 면세유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겨울사육에 부담감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표 1〉은 2006년 농림부에서 고시된 양계농가에 면세유 공급 기준이며, 〈표 2〉는 이 표를 이용하여 사육규모 40,000수 중부지역 A급 무창 계사와 D급 유창계사의 연료비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이다.

무창 계사 경우 면세유 지급량 대비 92.8%, D



급 유창 계사 경우 52.1~60%로 턱없이 부족하여 농가는 사육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고 있다. 농림부에 이미 건의를 통해 계절지수를

〈표 1〉 양계농가 면세유 공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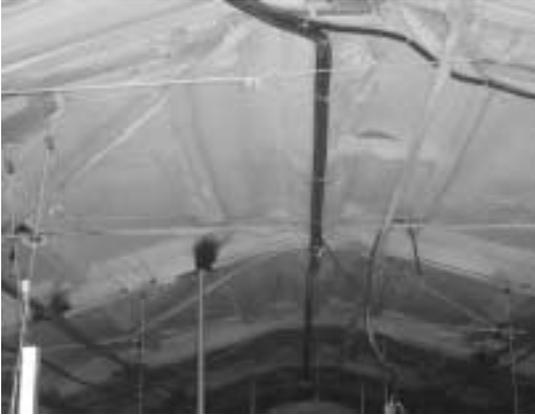
구분	계사형태	공급량(L/회)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55,000	60,000
강원	무창	740	1,480	2,220	2,960	3,700	4,440	5,180	5,920	6,660	7,400	8,140	8,880
	개방	860	1,720	2,580	3,440	4,300	5,160	6,020	6,880	7,740	8,600	9,460	10,320
중부	무창	580	1,160	1,740	2,320	2,900	3,480	4,060	4,640	5,220	5,800	6,380	6,960
	개방	650	1,300	1,950	2,600	3,250	3,900	4,550	5,200	5,850	6,500	7,150	7,800
남부	무창	450	900	1,350	1,800	2,250	2,700	3,150	3,600	4,050	4,500	4,950	5,400
	개방	490	980	1,470	1,960	2,450	2,940	3,430	3,920	4,410	4,900	5,390	5,880
제주	무창	310	620	930	1,240	1,550	1,860	2,170	2,480	2,790	3,100	3,410	3,720
	개방	350	700	1,050	1,400	1,750	2,100	2,450	2,800	3,150	3,500	3,850	4,200

※ 자료 : 농림부

〈표 2〉 유창계사와 무창계사의 연료비 시뮬레이션

월(입추)	구분(년 6회전 사육기준)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합계	차이(%)	
단열 등급	A(무창)	면세유(L)	4,640	4,640	4,640	4,640	4,640	4,640	27,840	
		실사용량(L)	9,000	7,000	4,000	1,000	2,000	7,000	30,000	92.8%
	D(유창)	면세유(L)	5,200	5,200	5,200	5,200	5,200	5,200	31,200	
		실사용량(L)	17,000	10,000	5,000	2,000	3,000	15,000	52,000	60.0%

※ 〈표 1〉의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



감안한 연료비와 60% 이상 되는 유창계사 기준을 감안한 연료비 책정을 요구했다.

정부가 점차적으로 면세유를 폐지하겠다는 의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양계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계열사와 함께 단열을 증가하고 무창계사를 신축하는 등 시설 투자에 박차를 가해야 함은 당연한 결론이다.

계열사는 단열 및 님플, 환기시스템 구축 투자에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농가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생의 방향을 주도해야 한다.

2 경보기는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날씨가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전기 누전 및 단전 사고로 여기 저기 열사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 피해는 날로 커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 보면 모두 우리의 부주의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단열과 무창계사 등 시설이 보강되면서 전기사고는 닭들에게 순식간에 치명적인 환경을 만든다. 즉 열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위 농장은 1동 30,000수 전량 폐사 발생 : 전기 누전 원인



경보기 미 설치농가

〈표 3〉 왕겨와 수입톱밥의 경제성 분석

구분	왕겨(평시가격기준)	왕겨	톱밥	비고
kg당 가격/원	114	150	185	*평시 왕겨 35kg 1포에 4,000원 기준
톱밥 1톤백 무게/kg			611	* (5톤 차량에 14개 8,560kg 도착)
총수량	22.75	5,000	7,949	*왕겨 3.5톤 1대, 5톤 1대 *톱밥 : 13개톤백 사용
총도포 평수	1	338	372	*1동(260평), 2동(225평), 3동(225평)
평당 소요/kg	22.75	15	21	*평당 0.65포대 사용
평당 소요/원	2,600	2,222	3,953	
수당 소요/원	47.27	40	72	*평당 55수 입추시
갈집두께	9cm	3~4cm	1.5cm	
총비용		750,000	1,412,400	운임료 180,000원 별도

닭들은 많은 양의 열을 뿜어낸다. 1.8kg 닭의 경우 매시간 60Btu 이상 열을 발생시키는데 20,000수의 닭이 있는 계사 경우 100만 Btu 열이 발생하며, 이 열량은 6대의 온풍기를 계속 가동시키는 것과 같다.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는 연간 10억 이상 재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피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바로 '경보기 설치' 다.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만이 경보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고 관리하는 농가는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에게서는 불행이 오지 않으리라는 안전불감증이 해마다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경보기는 200만원 정도면 제법 쓸만하다. 10만 원 하는 간단한 것부터 핸드폰 및 인터넷 웹에서 기록까지 제공하는 고가 장비도 최근 많이 설치하고 있다.

모든 시설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양계시설에서 경보기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설비가 되어가고 있다. 갑작스런 단전이나 누전은 큰 사고를 예고하고 있고 사고를 한번 당한 농가는 소 잃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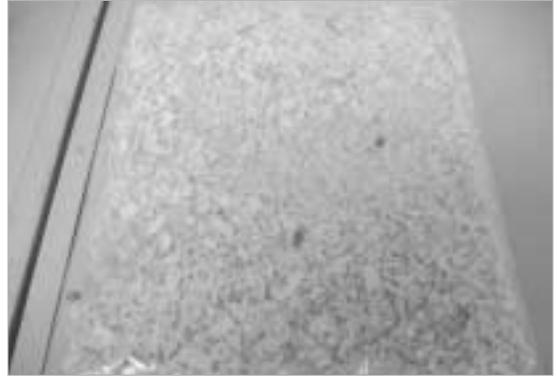
외양간 고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3 왕겨를 비축하여 병아리에게 부드러운 자리깃을 제공하자

올 여름 왕겨 파동을 겪은 농가는 모두다 왕겨의 중요함을 느꼈던 한 해였다. 왕겨의 유통은 언제나 동일한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일 것으로 판단된다. 가을에 농가들은 왕겨를 구할 수 있지만 왕겨를 재활용한다. 따라서 왕겨 생산이 많지만 수요가 많지 않으므로 가격이 저렴할 시기이다.

이때가 농가에서 왕겨를 비축해야 할 시기이다. 물론 왕겨를 비축할 장소나, 보관이 어려운 시기이나 일년 농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이익적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표 3〉은 왕겨와 수입 톱밥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실험했던 자료이며, 수입 톱밥의 경우 2배 이상의 원가로 인해 경제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하차작업 및 압축되어 있는 대패밥을 깔기가 불편한 점도 있지만 바닥관리가 잘 되어 닭다리에 지루 발생 문제 및 흥부 수종이 없어 검토해 보



아야 할 대상이다.

이제 소비자의 입맛이 까다로워졌다. 고객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닭고기를 원한다. 바닥이 포근해야 깨끗한 품질의 닭고기가 생산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가을 들녘 탈곡이 시작되었다. 여기 저기 햅쌀이 익어 우리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왕겨를 준비하자. 쉬어 갈 때 양계장 옆에 왕겨를 비축하여 성수기를 준비하자. 먼저 준비된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준비된 열매를 따먹을 뿐이다.

4 글을 마치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99% 성공을 한다고 확신한다. 준비된 자신감은 계획적이며, 목표가 명확하고, 실행의 준비가 되어있어 항상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 필자는 초등학교 때 읽은 우화 ‘개미와 베짚이 동화’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다.

“추운 겨울이 오자 개미는 행복했습니다” 

Tip

영화상영 30분 지연되면 입장료 전액 환불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대폭 개정 16일부터 시행

영화상영이 사업자의 실수 등으로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입장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1시간 이상 지연시에는 입장료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월 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영화관람 업종에 관한 피해보상규정이 신설돼 소비자의 사정으로 영화관람을 취소하는 경우 영화 상영 20분 전까지는 입장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영 시작전 20분에서 시작시까지 취소할 때는 입장료의 50%를 환불받으며 시작된 후에는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사업자 때문에 영화 상영이 늦어진 경우 상영시간보다 30분 이상 지연됐으면 입장료 전액을, 상영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됐으면 입장료의 2배를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 때문에 영화 상영이 상영 중 10분 이상, 2차례 이상 중단된 경우 입장료 전액을, 상영중 30분 이상, 3회 이상 중단된 경우 입장료의 2배를 환불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가스서비스업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도 새로 포

함했다.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피해, 검침착오·검침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납부, 가스요금 이종청구 또는 소비자 잘못으로 인한 이종납부의 경우 환급해 주거나 차액을 빼고 정산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업의 경우 소비자가 공연일 하루 전까지 표를 환불받을 경우 몰아야 할 위약금을 50%에서 30%로 축소했으며 공연일 3일 전까지는 예매당일 취소한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LCD TV나 노트북을 제외한 LCD 모니터의 핵심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거액이 드는 LCD 패널의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도 추가적인 계약없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소비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요구를 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해외이주나 장기유학을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했다.

- 출처 :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